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1. 11. 14. (나해) 제2294호

# 대구주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다니 12,1-3 **화답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2독서**  
히브 10,11-14,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3,24-32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  
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 이해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백천본당 주임 | 채홍락 시몬 신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느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잉태와 출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사명이며 요구이자 결단입니다. 인간은 도전받지 않고서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자유를 행사하여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법칙입니다. 자유로이 인간이 되는 이 과정에는 유혹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될 위험 때문에 인간은 인간 본성의 잠재적 반역자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 하느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느님의 총체적 요구에 직면하여 인간 정신의 빈곤을 선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자기 포기, 이 철저한 ‘가난’을 방해하려 합니다. 사탄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무력함의 힘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유혹은 하느님의 자기 비움에 대한 공격이며, 영적 풍요에 대한 거부의 유혹입니다. 하여 인간을 향해 ‘너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탄의 슬로건입니다. 그것은 사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성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며, 무수한 변형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 속에 몸을 담그시고, 인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가난이라는 어두운 신비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포기 안에서 예수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서 일어난 일을 행동으로 완성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셨으며, 우리의 몫을 짊어지고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필리 2,6-7) 그분은 인간이 타고난 영적 빈곤에 대해 “예”라고 말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애쓰며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전적인 헌신의 유산, 곧 우리의 빈곤에 대한 하느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가난의 성사이며, 죄 많은 세상을 향한 참 인간의 성사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에 충실했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인간이 되는 방법을 봅니다. 그에게서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를 봅니다. 그에게서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가난을 예리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아빠(Abba), 아버지께 대한 신비한 의지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의 가난을 실천하는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가난을 의지의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만남이 참되려면 영적 가난에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려면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의 다른 이름은 비움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질 때 하느님의 공간이 열리며, 타자에 대한 연민의 공간도 열립니다. 우리는 비움을 통해서만 자신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존재의 따뜻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필론**



##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느님의 얼굴은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가난이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당신 현존의 구체적인 표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그들이 내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가난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참 얼굴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상호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과 소외를 덜어 주고 잃어버린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통합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라는 주님의 초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이러한 회개는 온갖 형태의 가난을 알아보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우리에게 연대와 나눔을 가르쳐 주는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생필품을 비롯하여 흔히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봉사는 우리를 행동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그 즉시 도움을 주는 일이, 인류가 오늘날 겪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선의 새로운 징표들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갖추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해를 맞이하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거행이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뿌리내리고, 가난한 이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직접 만나는 복음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병원과 요양원으로, 거리로, 때로는 그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로, 그리고 쉼터와 보호소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무엇을 갈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대덕본당 | 박돌순 세실리아

91세의 요셉 할아버지는 평소 성격이 불같으셔서 본당의 사회복지위원들도 쉽게 대하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방문해 반찬을 전해드린 며칠 뒤 요셉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딸네 집에 가게 되었어. 이제 반찬 그만 가져다줘도 돼!”

“갑자기요?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데예?”

“그런 건 알아서 뭐할라꼬! 반찬 이제 안 줘도 된다!”

웬일인지 할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 하셨지만 얼마나 아프신지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누워계신 할아버지는 복수가 차서 배는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발도 통통 부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요셉 할아버지, 따님 덕은 어딴니까?” “강원도 흥천이다.”

“언제 온다 카던가예?” “며칠 뒤에 온다 카테.”

“따님은 신자십니까?”. “아니, 성당은 안 다니다.”

빨리 병자성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당으로 달려가 부탁드렸더니 이튿날 오전 신부님과 수녀님이 방문하셔서 할아버지는 병자성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칠 뒤에 온다던 딸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님께 품에 온전히 안기시길 기도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어르신 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잘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버님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림\_ 윤여국(테오도로) 3대리구 사회복지사

반찬을 그만 받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전화에 걱정된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 할아버지가 하느님과 함께 한 마지막 순간이란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본당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이,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 실천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필문**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경기도의 용인 근처에서 태어난 신태보(申太甫) 베드로는 1795년 무렵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다. 1840년 전주에서 순교한 최조이 바르바라는 그의 며느리였다.

사촌 이여진 요한과 함께 입교한 베드로는 1801년의 신유박해가 끝난 뒤, 용인에 거주하던 순교자의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당시 교우들이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북경에서 다시 성직자를 영입해 오는 일이었다. 조선 신자들의 성직자 영입 운동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의 희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베드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경상도 상주의 잣골에 정착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그는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곤 하였다.

1827년 전라도에서 정해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신태보 베드로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상주의 포졸들과 함께 잣골로 들어닥쳤다.

베드로는 이내 전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훗날 그 자신이 성 샤스탕(St. J. Chastan, 鄭) 신부의 명에 따라 기록한 <옥중 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음의 내용은,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내 다리는 살이 헤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였으며, 앉지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내 상처는 곪아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더욱이 내 방은 벌레와 이투성이었으므로 아무도 내게 근접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다행히 건강한 몇몇 교우들이 부축을 해주어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내 방을 치워주기도 하였다. 이 애덕의 행위를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처럼 형벌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결코 교회 서적과 동료들이 있는 곳을 밀고하지 않았다. 또 관장이 배교를 강요할 때면, “천주교 없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때때로 마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용맹한 신앙심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의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임금의 명에 따라 전주 장터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량이었다.



신태보 베드로  
(1769 ~ 1839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33. 혼인의 사랑 ②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이가 우리를 계속 학대해도 놔두거나, 육체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이가 우리를 이용해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랑에는 언제나 깊은 연민의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다른 이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를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풍성한 결실을 보여 줄 수 있으며 내어 주는 행복, 곧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주고 봉사하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고귀함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의 기쁨』, 91~94항)



문화홍보국에서는 2019년 <빛>잡지 표지 그림을 연재했던 성바오딸수도회 김옥순 수녀님의 성화와 옛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지나온 우리네 삶을 돌아보며 코로나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마음 따뜻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 김옥순 수녀 『Bible & Old story』 특별전

기간: 12.1(수) ~ 12(일) 오픈식: 12.1(수) 15: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 전관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암페어 다운(Ampers down, 절전) 운동 동참하기**(쓰지 않는 전기 콘센트 제거, 전등 소등, 짧은 층 계단 활용)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 말씀의 해 안내지 44호 정답

1. 주님, 계획, 결정, 주님 2. 저울추와 서로 다른 뒷박, 이 둘을 역겨워하신다. 3. 주님을 신뢰하도록 4. 1)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도록 2)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시도록



##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0일(토)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20일(토) 11:00 성모당
수험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미사	11월 16일(화) 11:00 성모당	-	-

### 성소 | 피정

####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1.20(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11.16(화)~17(수)

시니어: 11.23(화)~24(수)

문의: (054)382-0091

### 교육 | 모집 | 기타

####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사회사업팀, 650-3529

####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069-10-003259

문의: 256-9494

####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 미혼모 돕기 2022년 흥창익 비오 신부님의 묵상사진 북캘린더 “찬미받으소서” 선착순 한정판매



금액: 10,000원 (100권 이상 단체주문시 20% 할인)

주문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발간하는 탁상용 북달력이 2022년에는 흥창익 비오 신부님(효자본당 주임)의 묵상사진과 함께 합니다. 이번 캘린더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 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http://www.kisaneye.co.kr)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남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준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http://wedmate.co.kr)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권영조(마르코) 신부  
1965년 11월 16일
- 남대영(루도비코) 신부  
1972년 11월 17일
- 류홍모(안드레아) 신부  
1948년 11월 18일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21(일) 14:00  
대상: 중1~대학·일반  
장소: 남산동 신학교

12월 카나훈인강좌

일시: 12.12(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2.2(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15(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509-9748

군중후원회 창립50주년 감사음악회

일시: 12.29(수) 19: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출연진: 사제밴드(대일),  
바리톤 제상철 외 다수

문의: 256-0815

교육 | 모집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장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미술심리상담사 2급·1급, 섬유공예,  
제대꽃꽂이, 성물도예, 수필입문,  
사범꽃꽂이, 칼라바, 발성법, 장구,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2022.2.9(수)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대구가톨릭학술원 박정환 교수 초청 특강

일시: 11.18(목) 17:30(미사후특강)  
장소: 교구청 꾸르실료 3층 성당

주제: 아동의 인권과 입양문제  
참가비 무료 / 문의: (010)7190-1258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4차: 11.26(금)~28(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기간: 11.1(월)~26(금)  
주최: 사랑의씨든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대상: 상호문화교육희망자, 이주배경청  
소년 /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432-9241

채용 | 안내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  
<http://www.sungsam21.com>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재성(오틸리아), 박우영(테레사)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순번추첨결과 : 11.18(목) 대구주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발송
- 주보광고접수 : 11.25(목)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립 병원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베스)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 외과교수)  
안과전문 의서재신(베드로)·장주현(비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힐스피부과**  
새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시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담병원 3층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